

동아시아 영화 속 공간에 담긴 미학 탐색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건축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영화의 미

최효식 지음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서구에서 태동한 예술이다. 결국 동아시아 일대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화는 서구 영화 문법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구의 발전을 따르며 쫓아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이 바뀌게 된 계기를 준 것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 영화 강국인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음으로써 가능성을 증명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진정한 한국영화의 출발을 1990년대 후반으로 보기도 한다. 당시 데뷔한 박찬욱 감독, 허진호, 김지운 등이 아직도 한국영화계를 이끄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최효식 한양여대 인테리어드из아인과 교수는 90년대 후반의 한국영화 공간들은 이전 한국영화들에 빛을 지고 있다고 본다.



"1990년대 후반 한국영화들의 공간은 그 당시 데뷔한 젊은 감독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세운 영상 문법에 따라, 한국영화만의 독특한 공간을 구축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영화계들, 예를 들어 서구 영화나 같은 동아시아 영화인 일본영화와 중국영화의 공간적 특성들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최효식 교수가 펴낸 '건축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영화의 미'는 영화에 담긴 공간의 미학을 탐색한다. 저자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쇼몽' 등 대표 영화 속 공간의 아름다움을 건축과 영화의 융합적 시각에서 돌아본다. 저자는 최근 건축과 영화, 정신분석학이론 중 하나인 대상관계이론을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뮬라크림에 의한 블레이드 러너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과 같은 논문을 썼다.

최 교수는 21세기 동아시아 영화의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다양성의 측면에서 세계 영화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기생충'의 배경은 20세기 말 등장한 1970-19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것이다. "배우의 연기와 동선이 더 돋보이게 하는 공간으로 또다시 활용되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2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영화의 공간보다 더 퇴화했다는 측면도 있다.



공간을 매개로 빈부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 '기생충'의 대저택 내부(왼쪽)와 지하방.



저자는 일본영화와 중국영화의 공간적 특성은 한국영화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관점을 취한다.

먼저 중국의 '붉은 수수밭'은 장이며우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영화다. 물론 '붉은 수수밭' 등은 1920-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저자는 표면적인 중국 전통건축의 특징 즉 조적식구조와 입식의 생활양식 외에도 '폐쇄성'을 든다. '국두'와 '홍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적 특징에서 찾는다. 현대 중국에 이르러까지의 빈번한 왕조 교체와 내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내전은 넓은 평야에서도 일어나지만, 도시를 둘러싼 성으로 옮겨 오고 결국은 도시 안에서 전장의 불길이 번지면 마지막 저항의 장소가 바로 집이 되기에, 주택은 삶의 중요한 영역이면서 전쟁에서도 방어를 위한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다."

일본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는 세계 영화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동아시아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와이 순지의 영화 속 공간에서 하나의 법칙을 예로 든다.

그것은 편집, 동선과 함께 영화의 서사로서 '러브레터'부터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관객의 시선을 화면 너머로 이끄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화면 너머의 탐구는 선배 감독들인 오즈나 아키라 등의 감독들이 추구한 '화면 내에서의 공간 배치에 대한 방법론'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건축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영화의 공간미는 "현실적인 건축공간의 모습에 낯설을 더하고 재창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영화는 원래 이래'라는 편견과 싸워서 정취한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서해문집·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제임스 R.해거티 지음, 정유선 옮김

"우물쭈물 살다 내 이별 줄 알았지"(버나드 쇼)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영국의 극작가이지만 그가 남긴 작품보다 더 '유명한' 게 있다. 바로 묘비명이다. 버나드 쇼는 재치있고 익살스러운 글을 묘비에 새겨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일깨웠다.

미국 웨스트트러트저널의 부고전문기자인 제임스 R.해거티가 쓴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는 이런 묘비명과 비슷한 맥락에서 삶의 화두를 던진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부고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책에서 (묘비명을 넘어) 독자들에게 자신의 부고를 직접 당장 써보라고 권한다. 평범하고 특별한 인생사가 없을 지라도 얼마든지 흥미로운 부고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그는 지난 7년간 800여 명의 부고 기사를 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고 기사를 잘 쓸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삶의 이력을 요약하면 서로 그 사람을, 그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담을 것'. 그가 알려주는 '부고기사의 노하우'다.

이런 원칙에 기반한 그의 글은 건조하게 사삼소식을 알리는 부고와 달리 삶의 굴곡진 여정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누구도 나보다 내 부고를 잘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저자는 '나는 어떻게 내 부고를 쓰고 있다' (222쪽)며 실제 작성중인 부고 일부를 실었다. 중학교 체육시간, 자전거 조립 아르바이트 등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등 심오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책을 덮는 순간, '내 부고 기사는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이 절로 생긴다. 하지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겨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셜·1만8000원>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자매의 책장

류승희 지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건 무엇일까?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두 자매의 이야기. '2013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류승희 작가가 4년만에 선보인 장편 만화 '자매의 책장'이 나왔다.

흑백 연필로 이야기를 그려낸 작가가 이번에는 1년 동안 계절이 변화하며 달라지는 풍경을 네 가지 빛깔의 채색 그림으로 섬세하게 담아냈다.

3년 전 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에 대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며 고통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우주'와 '미주'. 자매의 하루하루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우주는 매일 반복되는 고된 직장 생활과 아픈 엄마를 돌보는 일상에 지쳐간다. 미주 역시 아이가 태어난 뒤 일을 그만두고 홀로 육아를 책임지는 게 쉽지 않고 남편의 무관심이 서운하다.

두 자매에게 위로가 되어 준 건 '책'이었다. 아버지가 남겨 두고 간 책장에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모은 책들과 함께 자매의 지난날이 빼곡히 꽂혀 있다. 미주가 결혼한 후에도 자매는 여전히 책장을 공유한다. '대상당', '갈과 시작', '울리브 키터리지', '비 오는 날 또 만나자' 등 책장 속 책들을 매개로 작가는 자매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만화라서 이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이어지는 자매의 이야기가 궁금해 책장이 빠르게 넘어간다.

강원도로 이사 후 매일 책상에 앉아 '자매의 책장'을 그렸다는 작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주와 미주에게 말을 걸었고 그럴 때마다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 듯 든든했다"고 전했다. "만화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게 생경하면서도 경이롭고 행복했다. 내가 느낀 계절의 감각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고, 그 풍경 안에서 우주와 미주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랐다."

<보리·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

유현아 지음

시인은 곤고한 운명에 맞서 무수히 질문하는 자. 그 질문의 끝은 대부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쪽으로 향해 있다. 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시는 때론 뾰족하게, 혹은 미려한 언어로 불합리한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

부당한 노동문제에 주목하는 유현아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이 장비 시선 491번으로 출간됐다. 시인은 2006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 이후 10년 만에 이번 작품집을 펴냈다.

총 4부로 이뤄진 시집은 노동현실에 천착한다. 불합리한 일상에서 '공무원', '당고 개역', '전광판', '문방구' 등 일상적 공간들을 바라보며 희망의 목소리를 메타포하는데, 시를 통해 도시민의 기계적 일상성을 파괴(러다이트)하려는 은유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니 사라져버린 구두와 슬리퍼와 운동화의 생사 따윈 몰라도 돼/ 한 짝씩 굴러다니는 운동화와 슬리퍼와 구두들은 마주치지 않기를"(2년) 중에서)

위 시는 지하철 바닥에 모여있는 출근길 신발들을 보며 떠올린 시인의 단상에 다름없다. 특별히 유려한 정경을 묘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먼지떨이 발들을 보며 노동현실을 그대로 탁본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렇지만 아침 출근길마다 '삐딱선'을 타고 싶은 현대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을 적실한 언어로 드러낸다.

저자는 '시인의 말'에서 "여전히 출근하고 날마다 퇴사를 꿈꾸면서도 사라지고 있는 굴뚝들을 걷는다... 그래서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이라고 표현한다. 인간들의 노동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 같지만 고작 '손톱만큼의' 슬픔만을 남긴다. 저리라는 희망을 보며 내일을 견뎌 내라는 의미일까.

<창비·1만원>

/최원미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8월호

2023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우리는, 지금 여행 간다

- 코로나 엔데믹, 설레는 여름 휴가
- 여행 콘텐츠 전성시대
-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터널 저니
- 그들이 떠나는 이유, 명사들의 여행 예찬

멋진 여행

월출 비경 기찬 뒷길 천년 고찰

기찬 뒷길 | 기찬랜드 | 구림전통마을 | 천년고찰 '도감사' '초록 F&B' 착즙 과일주스 | 삼호주조장 '도감집' 막걸리 월출산 뷰 정원카페 '새실 오브 엠비언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㉔ 핀란드 헬싱키 건축, 음악, 조형물 도시 곳곳을 가득 채운 '예술이 있는 삶'

호남의 누정 ㉔ 광주 부용정 공동체 규율 만들고 강학 펼친 광주향악의 시원지

에향 초대석

자연 보며 '날마다 읽고 쓰는' 시인 **장석주**
"글쓰기에 사로잡힌 내 운명을 사랑한다"

특별기획 - 전남관광영어지도 ㉓

남도의 정월 세계의 정월이 되다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㉓

남만항구 목포의 아경속으로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㉑ 함평군립미술관

참신한 기획전으로 전국 입소문

향인의 '예술가의 한 끼' ㉑ 명과 기하학을 사랑한 판화가 김차섭 꿀 얻어달 탐 남기고 하늘로 떠나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㉑ 남광주 시장과 전대병원

오동진의 '시내마 역사' ㉑ 혁명의 나라 쿠바, 사랑과 낭만이 혁명처럼 넘치네